

ASEM정상회의시 NGO집회 및 시위 性向에 따른 대응방안

양 재 열*

◇ 목 차 ◇

-
- I. 서 론
 - II. NGO의 개념 및 최근 국제행사시 시위 양상
 - III. 제3차 서울ASEM 회의시 시위 성향
 - IV. 향후 NGO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최근 세계 곳곳에서 NGO들의 반미활동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NGO들은 1999년 11월 시애틀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과격 폭력시위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이후, 다자간 정상회의나 국제회의 개최시마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정책이 환경파괴는 물론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이나 대표단 숙소 봉쇄, 대표단의 회의장 입장 저지, 주요도로

* 대통령경호실 경호1처장.

점거, 기물파괴 등 과격 폭력 시위를 전개해 왔다.¹⁾

또한 이들은 각국 NGO들과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전에 집결장소, 시위방법 등 정보를 교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NGO들의 반미활동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NGO들의 반미집회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미 NGO들은 매주 1~2회씩 미 대사관, 미군기지 인근에서 반미시위, 가두행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관련 집회 등 타 시위보다 반미집회 시 더욱 과격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NGO의 개념과 최근 국제행사시 집회 및 시위 양상을 살펴보고 제3차 서울 ASEM회의시 예상되었던 시위 및 성향을 분석해 본 다음, 향후 NGO의 활동 전망을 예측해 봄으로써 앞으로 개최될 대규모 국제행사나 다자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대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범위는 최근 2~3년간 각종 국제행사시 NGO들의 집회 양상을 범위로 설정하였고 각국 공안기관의 대처방안을 분석하고 각종 문헌적 방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 NGO의 개념 및 최근 국제행사시 시위 양상

1. NGO의 개념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대비되는 말로써 "정부조직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공익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단체"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며 NGO란 용어는 1946년 6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비정부기구위원회'(Committee of NGO)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³⁾

NGO 활동 시작은 1945년 상황에서 UN이 창립될 때 42개의 NGO가 초청된데서 비롯되었는바, 그후 50년이 지난 지금 UN에 옵서버자격으로 인준된 NGO만도 2000여 개에 이른다.⁴⁾

일반적으로 NGO의 범주에 학생단체나 순수이익집단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우리 나

1) 국가정보원, ASEM행사 방해책동 분석 및 대책, 2000, p.2.

2) 대통령경호실, 국내 반미성향 NGO 동향분석, 2000, p.1.

3) 경찰청, 해외공안기관의 NGO 행사 방해세력 분석 동향, 2000, p.3.

4) 대통령경호실 팜프렛, NGO의 이론적 배경, 2000, p.2.

라의 경우에는 학생단체가 정치성을 띠면서 인권, 환경, 노동, 정책비판 등 NGO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순수 이익집단도 상황에 따라 인권, 환경, 여성, 노인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을 획일적으로 NGO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학계에서는 NGO의 범주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광의의 NGO 개념은 정부조직이나 정부에 의해 조직되지 아니한 모든 민간단체를 총칭하며 학생, 노동, 재야, 시민단체 및 순수 이익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직능단체를 말하며 협의의 NGO 개념은 광의의 NGO 중 순수 이익집단, 학생단체 등을 제외하고 통일, 정책, 인권, 환경 등 공익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⁵⁾⁶⁾

2. 최근 국제행사시 NGO 시위 양상⁶⁾

1) 시애틀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1999. 11. 30 ~ 12. 3)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총회 결렬은 NGO들의 시위개최에 대비한 치밀한 사전 준비에 반해 시애틀 경찰, FBI 등의 공안기관들은 과격 NGO에 대한 정·첩보 활동 미흡 등 안이한 대처가 문제확산을 야기시켰으며 특히 불법시위 초기 단계에서 강경 진압 기회를 실기(失機)하여 시위확산 차단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NGO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무역자유화가 환경파괴 및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했으며 따라서 2000년 출범 예정인 WTO 新다자간협상(New Round)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행사 개최 전 워싱턴주 국제무역위원회가 WTO행사를 시애틀로 유치한데 대해 주민들 사이에는 여론공청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의식 팽배했으며 추수감사절(11.25)과 미식축구 경기일정 등을 피해 12월 9일에 개최하자는 여론제기를 정부당국이 무시했었다.

시위를 주도한 시민 국제무역 감시단체(PCGTW)는 1999년 1월 시애틀이 각료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직후 전세계 NGO들에게 E-Mail을 발송하여 11월에 시애틀 집결을 호소했으며 1999년 9월 웹사이트(www.seattle.99.org)를 개설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전단배포와 각국 시위대에 대한 숙박 및 지리안내 임무를 부여하였다.

5) 대통령경호실, 전계서, p.3.

6) 국가정보원, 국제 NGO의 국제행사 방해사례, 2000, p.4~p.6.

시애틀에 집결한 4만 여명의 시위대는 시위장소, 시간 연락 및 숙박 등 모든 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하였으며 11월 30일 행사 개최와 동시에 세계 각국 NGO들은 연합시위 개최를 결의하고 행사장인 「워싱턴주 무역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인간사슬로 행사장을 둘러싸고 대표단의 입장을 방해하는 한편 「무어」 WTO 사무총장, 「바세프스커」 미 각료회의 의장 등이 예정된 시간에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막식이 취소되는 등 행사차질을 초래하였다.

개회식 오전에는 EU 등 외국에서 온 원정 시위대들의 시위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全美 노조원들(약 3만명)이 가세하여 미당국이 선포한 이른바 '시위금지구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도심의 주요 교차로를 점거하고 각국대표단 숙소(쉐라톤 호텔)를 봉쇄하여 협상 대표들은 외부출입을 못한 채 호텔 내에 억류되었다. 오후에는 시위대 증가로 통제가 용이치 않자 시애틀 경찰은 강제 해산차원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위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극되어 일부 주민들까지 시위대에 합류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일몰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사슬을 형성하고 격렬시위를 지속하였다.

시애틀시 및 워싱턴 주경찰은 수만명의 시위대 집결을 예상하지 못해 초동대처에 실패하였다.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과격 시위가 계속되자 워싱턴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하였으며 비무장 주방위군을 투입하여 시위에 대처하였으며 극렬시위자 등 600여명을 연행하였다.

2) 워싱턴 IMF · IBRD 춘계회의(2000. 4. 11 ~ 17)

NGO는 IMF 및 IBRD의 자유시장 정책이 貧民國 빈곤 심화를 조장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빈민국 외채 탕감 등을 촉구하며 IMF/IBRD 총회 반대를 천명했다.

4월 9일 「세계정의를 위한 동원」 등 400여 NGO 단체 회원 1만 여명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 4월 16일 전체 회의 시 워싱턴에 집결하였으며 이동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인간사슬을 형성, 주요도로를 점거하고 회의장 봉쇄를 기도하였다. 4월 17일 시위대들은 경찰측과 평화적 시위전개에 합의하였으나 백악관 주변 등에서 경찰저지선을 뚫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15일 워싱턴 당국은 시위대 사용건물을 소방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폐쇄하고 시위대원들을 해산시켰으며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압수하였다. 4월 16일 백악관, IMF,

IBRD 본부 등이 위치한 시내 중심부 일대를 바리케이드로 봉쇄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였으며 4월 17일에는 IMF, IBRD 본부 주변 건물에 근무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임시 휴무령을 선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이날 경찰은 과격시위자에 대해서는 곤봉 및 최루탄을 사용하여 진압하고 20여명 검거하였다.

3)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00. 1. 17 ~ 2. 1)

NGO의 주장은 미국 등 강대국들의 세계화 추진에 반대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정책 및 세계경제 포럼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농민단체를 비롯한 스위스·독일·이태리·터키 등지의 NGO 단체들이 E-Mail을 통해 1월 30일 「클린턴」美대통령 연설에 맞추어 일제히 시위를 전개키로 사전에 연락을 취하였다.

“이태리 녹색당”, “무주택자 연합회” 등 NGO 단체 회원 1,300여명이 「클린턴」美대통령 회의장 도착시 “양키 GO HOME” 등을 외치면서 회의장 접근을 시도했으며 과격세력들은 맥도날드 상점 유리창과 내부 시설물을 파괴하고 대표단 투숙 호텔에 게양된 성조기를 불태우며 회의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자진 철수하는 등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자제하면서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였으나 시위대가 회의장 접근을 시도하자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는 등 양측이 충돌하여 경찰 2명이 부상당하고 시위대 4명이 체포되었다.

4) 오키나와 G-8 정상회의(2000. 7. 21 ~ 23)

NGO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빈부격차를 확대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최빈국 외채탕감 확대, 탕감조건 완화 및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철수 및 미군범죄 규탄하였다.

쥬빌리 2000 국제회의, 그린피스, 오키나와 환경 네트워크 등 NGO 단체들간에 E-Mail을 통하여 집결 장소·시간 연락 등 사전 모의를 하였고 日외무성은 NGO 단체들을 회유하기 위해 나고市 미야사또 구민회관을 NGO 단체 사무실로 이용토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7.19~23간 “핵마루파”, “중핵과” 등 좌익세력 1,000여명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였고 7월 22일 총리주최 만찬장소 인근에서 40개 NGO 단체 800여명이 “정상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시위 전개하였다.

관계기관은 7.1~23간 경찰본부 내에 종합경비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경비인력 2만명을 행사장 인근에 배치, 시위 등 위해 행동에 대비하였으며 시위기도 관련 사전 정보수집 대처, NGO에 대한 설득·순화 등으로 별문제 없이 행사를 종료할 수 있었다.

5) 체코 프라하 IMF/IBRD 연차 총회(2000. 9. 26 ~ 27)

NGO는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 및 독점 자본주의 반대와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 빈곤,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행위 중단을 주장하였다.

시위를 주도한 체코의 경제 세계화 반대단체(INPEG)는 1년 전부터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국제 NGO 참여 독려 및 행사기간 중 숙소 편의를 제공하였다. 시위지도부는 프라하 교외 농장에 지휘 캠프를 설치하고 “인간띠 만들기”, “응급 처치법”, “가두연설” 등 시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시위 주도자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전문 시위단체 훈련장에서 5일간 시위방법 등에 대한 전문훈련을 이수하였다.

5천 여명의 시위대는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시내 곳곳에서 “IMF는 합법적 마피아”, “IMF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밤늦도록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극렬 시위자들의 각목·보도블럭 투척 등으로 경찰과 충돌하여 경찰 51명 등 6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위대는 대표단 투숙호텔 봉쇄를 시도했으며 다국적 기업 상징인 맥도날드 햄버거 상점을 공격하였다.

관계기관의 대처방법으로는 9월 23일 「하벨」 대통령이 NGO 대표 면담, 요구사항을 청취한 후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9월 26일 「카슬」 프라하 시장은 NGO들에게 라디오 연설을 통해 “신념에 따라 시위를 벌이고 요구사항을 주장하되 법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하였고 체코 경찰은 11,000여명의 경찰인력 동원, 과격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최루탄과 물대포 발사 등 강력한 대응을 하였다. 9월 26일 오후 시위대가 회의장을 포위하자 경찰은 회의장 출입을 통제한 후 비상통로를 통해 대표단들을 숙소로 수송하였다.

최근 5건의 국제행사 중 NGO들의 시위로 인해 4건이 행사진행 실패 및 지장을 초래하였고 1건만이(G-8회의) 대규모의 경찰력을 투입, 강력 진압을 통해 별 문제없이 행사가 종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상기사례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근 국제행사시 NGO 시위 사례

국 제 회 의	인 원	시 위 양 상	대 비 책
시애틀 WTO 각료회의(99. 11)	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NGO에게 E-Mail 발송 ▪ 대표단 숙소 봉쇄 ▪ 회의장 입장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루탄 발사 ▪ 비상사태 선포 ▪ 야간통금 실시 ▪ 주방위군 투입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00. 1)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 접근 시도 ▪ 맥도날드 상점 유리창 파손 ▪ 성조기 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루탄 ▪ 고무탄
워싱턴 IMF/IBRD 총회의(00. 4)	1만2천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 이용 ▪ 인간사슬 형성 ▪ 주요도로 점거 ▪ 회의장 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대 사용 ▪ 건물 폐쇄 ▪ 곤봉, 최루탄 사용
체코 프라하 IMF/IBRD 총회 (00. 9)	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이용 산발적 시위 ▪ 각목, 보도블럭 투척 ▪ 대표단 투숙 호텔 봉쇄 ▪ 다국적기업 상징인 맥도날드 햄버거 상점 공격 ▪ 회의장 포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벨대통령 NGO 대표 면담 ▪ 프라하시장 특별 연설 ▪ 최루탄, 물대포 사용 ▪ 비상통로로 대표단 숙소 이동

Ⅲ. 제3차 서울ASEM 회의시 시위 성향

ASEM은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을 위한 정상회의로서 미국주도의 여타 국제회의와는 성격이 달라 미국을 대상으로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국제 NGO들의 참여 열기는 다소 저조했으나⁷⁾ 이번 서울 ASEM 행사에서는 민노총과 학원 운동권이 최대 방해 위협세력으로 대두되었다.

민노총은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세력 결집, 전학련 등 학원 운동권은 남북화

7) 금번 제3차 서울ASEM 회의시 국제 NGO는 독일, 일본, 태국 등 11개국 12개 단체 150여명이 참석하였음.

해 분위기로 위축된 대정부 투쟁 활성화 호기로 간주하여 회의장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 노숙투쟁 등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면서 경찰 저지선 돌파 및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경찰과 충돌시 화염병 투척, 투석, 각목, 쇠파이프 사용 등 과격 행동 가능성 및 정상투숙호텔 주변 등에서 산발적 기습 시위, 현수막 게시, 도로점거, 정상차량 운행 방해 등의 불법 활동이 예상되었다.⁸⁾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국제행사시 NGO들의 집회 및 시위 성공사례의 영향을 받아 제3차 ASEM 회의시도 '제2의 시애틀 재판(再版)을 만들자, 시애틀의 영광을 서울로'라는 구호아래 국내 NGO 단체 주관하에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계획되었다.⁹⁾

1. 국내 반미성향 NGO 활동 성향

1) '80~90년대 주요 활동

1980년대 초반 민주화 열기와 5·18 광주민주화 진압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 대두를 계기로 과격 학생단체들의 미대사관, 문화원에 대한 방화, 점거, 폭파 등 반미활동이 시작되었다.¹⁰⁾

<표 2> 1980년대 주요 반미운동

구 분	시 기	소 속 단 체
광주 미문화원 방화	80. 12. 9	카톨릭농민회 회원 5명
부산 미문화원 방화	82. 3. 18	문부식, 김현장
대구 미문화원 앞 가방폭발사건(1명 사망)	83. 9. 22	북한 소행으로 판명
미대사관 및 세종문화회관 노상 사제폭발물 투척	88. 5. 20	서충련 소속 6명
광주 미문화원 기습점거	88. 5. 23	전남대 총학생회 소속 5명

8) 국가정보원, 전개서, p.11.

9) ASEM 반대 '서울행동 시민의 날'로 규정, 10.20에 회의장 주변에서 약 5만명이 참석하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

10) 대통령경호실, 전개서, p.3.

1990년대 들어 학원,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정착되기 시작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과격학생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미국관련 시설 점거, 방화 등과 같은 극렬 반미활동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주한미군철수를 비롯하여 미군범죄, SOFA 개정 등 주요 이슈 발생시마다 미대사관 기습시위,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 산발적인 집단행동은 지속되었다.

본격적인 반미운동은 1999. 9. 30 노근리사건¹¹⁾ 등을 계기로 재개되었으며 재야, 학원가에서는 노근리사건을 이슈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반미의식의 전국적 확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미활동 전개를 위해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10.6),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11.12) 등을 결성하여 반미활동을 전개하였다.

2) 2000년대 주요 활동

최근 매항리사격장, 미군기지 독극물 무단방류, SOFA 개정협상 등 반미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반미활동 확산의 빌미가 제공되면서 매주 1~2회 마로니에공원, 미대사관, 미군기지 등지에서 반미시위, 가두행진, 서명운동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반미물결이 심화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의 “6.25 전쟁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사건을 공동조사 하자”는 제안을 적극수용, 국내에서도 ‘전민특위 남측본부’를 결성하였고 일본 등 해외 반미 NGO들과의 국제연대 활동도 강화하며 평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국내 반미 집회, 세미나 개최 시 상호초청하는 방식으로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¹²⁾

또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은 2000년 10월 미국에서의 2차 협상에 대비 미국정부를 상대로 전면투쟁을 벌인 바도 있다.

국내의 주요 NGO 단체현황은 다음과 같다.

11) 1950년 7월 6.25 전쟁당시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발생한 미군의 양민학살 사건으로 영동주민 400여명이 사망.

12) 녹색연합 등 일부 반미단체들은 2000. 7. 20 ~ 23일간 오끼나와 G-8 정상회담시 방일, 일본 반미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3> 국내 주요 NGO 단체 현황

분 야	주 요 단 체
연합체	전민특위,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미군기지공대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재 야	범민련,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전국연합, 민가협, 참여연대, 국민승리21,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전국빈민연합, 반미반전비대위
인 권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원회, 민권공대위, 천주교인권위원회
학 원	한총련, 전교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환 경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전국반핵운동본부
노 동	민주노총
종 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일하는예수회
경 제	경실련
여 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 제3차 서울ASEM 회의시 예상시위 및 성향

국내 NGO 및 모든 운동권 단체들은 2000. 8. 15 이후 투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으나 9월말 체코 프라하에서 발생한 ‘反세계화’ 시위에 고무되어 제3차 서울ASEM을 대정부 투쟁 촉발의 발판으로 삼고자 2000. 10. 4 ‘WTO 국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ASEM반대=반세계화” 이론을 홍보하며 시민단체 중심의 「민간단체포럼」과 대별되는 「서울 행동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전 운동권 역량 결집을 시도하였다.¹³⁾

그러나 ASEM행사의 중요성과 ‘ASEM≠세계화’, 해외 NGO들의 과격성이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됨에 따라 ‘서울 행동의 날’ 행사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외면 현상을 초래하였고 제3차 서울ASEM 회의를 주관한 대통령경호실 및 공간기관들은 ‘서울 행동의 날’ 행사 뿐만아니라 ASEM 회의기간 전후로 예상되는 모든 집회 및 시위에 철저한 대비

13) 경찰청, 9~10월 집회 및 시위 분석, 2000. p.2.

책을 강구하여 성공적으로 ASEM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당시 예상 집회 및 시위 성향을 살펴보면,

첫째, NGO단체들은 「ASEM2000 민간포럼」을 결성하여 10.18~19간 ASEM회의장 앞 봉은사에서 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외 150여개 NGO 단체 1000여명이 참여하는 민중대회 개최를 추진하였고¹⁴⁾, 「ASEM2000 신자유주의반대 시민 행동의 날」 연합시위도 10. 20일 ASEM회의장 앞에서 국내외 NGO 회원이 참여하는 연합 과격 시위를 기도했으나 올림픽 공원에서 평화적 집회 및 가두 행진으로 진행되었다.¹⁵⁾

둘째, 학생운동권은 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등을 주축으로 ASEM반대 국제 청년, 학생 네트워크 구축을 기도하였고 NL계열인 한총련은 민노총과 노·학 연대투쟁을 강화하며 레지스탕스를 조직 ASEM 개막식을 저지하고 「ASEM2000 민간포럼」 및 「ASEM2000 신자유주의 반대 시민 행동의 날」 연합시위에 적극참여, 시위주도를 기도하였다.

셋째, 민노총은 ASEM을 계기로 세계주의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강화를 위해 10.19~21간 회의장주변에서 노숙 투쟁기로 결정하였고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시민 행동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는 GMO(유전자 농산물) 식품반대, 반핵 등 이유로 거리 캠페인, 장외집회 등을 기도하였다.

넷째, 기타 단체들의 예상시위 및 성향으로는 중국대표단을 대상으로 국내 법률평수련자(600 ~ 700여명) 들도 시위가 예상되었고¹⁶⁾,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는 11월 중 방한성사를 요구하며 10. 20 ~ 21간 봉은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축구 단식투쟁을 기도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약분업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였다.¹⁷⁾ 「전국노점상연합」도 제 빈민단체와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를 획책하였고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 특별위, SOFA개정 국민행동 등 반미단체에서도 미군범죄 홍보 전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공안관계관들의 적극적 대비책 강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ASEM 기간 중 NGO 예상집회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
- 14)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 및 민간포럼측의 적극협조로 장소를 봉은사에서 건국대로 변경하였고 평화적 집회로 개최.
- 15) 10. 20일은 ASEM행사 개막식 및 1, 2차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D-day로서 시민 행동의 날 행사는 올림픽공원에서 평화적 집회를 마치고 올림픽주경기장까지 약 3.5km를 평화적 가두 행진으로 진행됨.
- 16) 「과문궁」 한국조직인 “한국 법률평 대법학회” 준비위는 중국대사관 및 중국대표단이 투숙했던 신라호텔 주변에서 중국정부 규탄 시위를 획책하였다.
- 17) 경찰청, ASEM2000관련 집회, 시위 관리 대책, 2000, p.3.

<표 4> ASEM 기간 중 NGO 예상 집회 현황

주관단체	행사명(참석인원)	일시(장소)	비 고
민중대회추진· WTO국민연대	ASEM반대 서울행동의날 (4만명)	10.29(장소미정)	민중대회위는 민노총 등 33개 단체, WTO 반대국민연대는 전농 등 41개 단체 참가
민노총	비정규직노동자선포식 및 문화제(800명)	(홍익대)	
	ASEM 상경투쟁(2만명)	10.19~21(회의장인근)	
	구조조정·노동조건개악 저지결의대회(2만명)	10.21 (회의장인근)	
한총련· 학생연대회의	청년학생총궐기(200명)	9.29(외대)	
	ASEM반대청년학생투쟁대회 (500명)	10.8 (여의도공원)	
	WTO반대 문화제(50명)	10.8(중앙대)	
	ASEM저지청년학생 총궐기집회(인원미정)	10.19(장소미정)	
	ASEM개막식저지투쟁 (인원미정)	10.20(장소미정)	회의장 진격투쟁
	ASEM민중대회(4만명)	10.21(장소미정)	
한국민간단체 포럼	ASEM2000민간포럼(1,000명)	10.18~19(건국대)	11개국 12개 해외단 체참가
대한의사협회	ASEM메디칼포럼(600명)	10.19~20(하얏트)	의료파업홍보
전민특위·SO FA국민행동	미군양민학살진상규명대회 (인원미정)	10.20~21(봉은사)	
노점상협의회	생존권투쟁결의대회(인원미정)	9.29(관악산)	
	노점상단속규탄대회(인원미정)	10.21~22(장소미정)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	달라이라마방한촉구단식투쟁(인원미정)	10.20~21(봉은사)	
파룬궁단체	반중시위(200명)	10.20~21	신라호텔·중국대사관앞
한국노총	공기업노조민영화저지투쟁	10.20(회의장인근)	

18) 경찰청, ASEM기간 중 NGO 집회 일정, 2000, p.13.

3. 제3차 서울ASEM 회의 성과

최근 다자간 국제회의시 NGO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제 회의진행이 거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국제행사가 실패로 종료되었다.

금번 제3차 서울ASEM 회의를 계기로 성과를 살펴본다면,

첫째, 다자간 정상회의 신모형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 및 경호유관 부서의 사전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와 수 차례의 협조회의, 대책회의를 통해 충분한 분석 및 대비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NGO 단체들과도 끊임없이 대화창구를 마련, 상호 적극 협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완벽한 경호경비제공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제신인도 고조로 무역투자가 급증하였다.

셋째, 새로운 시위문화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회 및 가두행진 등 시위시 경찰과 마찰이나 충돌이 없었고 평화적 집회 및 시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차원의 금번 제3차 ASEM회의가 타 국제회의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ASEM≠세계화)는 점을 충분히 홍보한 점과 국제회의시마다 해외 NGO들의 과격성이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된 점, 또한 건국 이래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정상회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다자간정상회의 현황(아시아지역)

구 분	ASEM	APEC	ASEAN
명 칭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	<p>26개국 (아시아10, 유럽15, EU집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10) : 한, 중, 일,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련, 브루나이 • 유럽(15) : 영, 독, 프, 이, 태리, 아일랜드, 네델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 EU집행위 	<p>21개국</p> <p>한, 미, 일, 중, 인니, 말련,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홍콩, 파푸아뉴기니</p> <p>※ 신규참가국 : 베트남, 페루, 러시아</p>	<p>12개국</p> <p>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니, 말련,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p> <p>※ 한국, 중국, 일본은 특별초청국</p>

창 배 설 경	아시아 유럽 협력강화 94.10. 싱가포르 고속통 수상 제안으로 출범	태평양연안국가의 경제협력, 호주 호크 수상이 제안 창설	동남아국가들의 지역협력
회 의 주 기	2년	매년	매년(매3년 개최가 원칙)
최 근 회 의	1차(1996) : 태국 2차(1998) : 영국 3차(2000) : 한국 4차(2002) : 덴마크	1998년 : 말련 1999년 : 뉴질랜드 2000년 : 브루나이 2001년 : 상해	1998년 : 베트남 1999년 : 필리핀 2000년 : 싱가포르 2001년 : 브루나이

IV. 향후 NGO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제3차 서울 ASEM회의시 NGO 활동의 뚜렷한 성향은 첫째, 민주노총 등에 의한 집단적 행사방해와 ASEM에 NGO 의견반영 요구 및 회의장, 숙소 집단진입 기도가 특징이었으며, 둘째, 특정회원국에 대한 항의시위도 예상되었다. 즉, 중국, 필리핀 국가의 경우는 인권문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인종차별, 환경, 다국적기업 문제, 기타 노동, 민중문제에 대한 항의가 어떤 경로로든 표출되었다.

셋째, 대규모 민중대회시 폭력사태나 주변 교통체증 및 정체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서울ASEM회의 결과 시위주도세력인 민주노총과 학생운동권은 ‘서울행동의 날 행사’ 투쟁역량 결집 실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심한 내부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바, 노동계의 금속연맹 등 강경주도세력은 ‘反ASEM시위’가 지도부와 정부간의 야합으로 인해, 정치적 행사로 변질됐다고 지도부를 성토했다. 향후 별도의 대정부 투쟁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⁹⁾

국내에서도 “반미감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반미활동은 위협수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반미NGO들이 요구해온 매항리 사격장 폐쇄, 독극물무단방류 공개사과,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다, SOFA전면개정 문제도 8.3 SOFA개정 협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선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국내 반미NGO들의 반미활동은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 경찰청, 反ASEM 시위 양상 분석, 2000, p.2.

20) 경찰청, 전개서, p.6.

국제 NGO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행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과격 폭력성을 계속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99. 11.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 및 2000. 1. 스위스 경제포럼(WEF), 2000. 9. 26 체코 프라하 IMF/IBRD 총회 행사장에서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했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과거 핵물질을 수송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기 위해 자해적 충돌공격을 기도한 바도 있다.²¹⁾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들 시위자중 일부가 조직적인 훈련을 받아 매우 효과적으로 시위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²⁾

지난해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총회를 시발로 '세계화 반대' 시위가 국제적인 호응을 얻기 시작한데 이어 2000. 9. 26~27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체코 프라하에서 시위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반세계화 이념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의 조직적인 투쟁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프라하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전문시위자 단체인 '러커스 협회(The Ruckus Society)²³⁾의 훈련장에서 5일 동안 시위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시위 훈련 지망생들은 대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젊은이들로 정신적으로 세계화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족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이념에 공감한 사람들로서, 지금까지 이 훈련장을 거쳐간 사람들은 2천명에 달하고 이들은 해병대 훈련에 못지 않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평화적이지만 효과적인 시위 방법을 배우며, 특히 언론매체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익혀 세계화 반대 시위가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시애틀에 모인 5만명의 시위대들은 대열로 행진하는 전통적인 시위방식 대신에 소그룹으로 이합집산하는 방식을 택해 경찰의 진압을 피할 수 있었는데, 전자메일과 핸드폰 등의 통신 수단이 이 같은 신속한 시위 방식을 가능케 했으며, 시애틀 시위 이후 반세계화 시위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여기에는 미국 학생, 프랑스 노동자, 인도 농부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이들 시위자들은 일명 '시애틀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시애틀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조직들을 국제적으로 연계

21) 경찰청, 전게서, p.7.

22) 출처 : 「Die Zeit」, 독일주간신문, 9.27字.

23) The Ruckus Society는 1995년 10월 환경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비폭력 시민저항 운동과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운동 단체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LA인근 산타모니카 산맥의 말리브토팡가 캐년에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다.

시켜 세계적 차원의 저항에 나서고 있으며 기독교도,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사상적,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은 기업의 이윤과 주가 상승을 유일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에 저항한다는 공동의 목표로 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²⁴⁾

이상과 같이 국제 NGO활동 양상은 비폭력 저항운동도 전문화 시대임을 예고하고 있다.

V. 결 론

최근 세계 도처에서는 자국이익 추구 및 관계국과의 결속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행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지난해 시애틀 WTO총회 개최 시 NGO의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회담결렬에 성공한 이후 세계 주요 NGO들은 각종 국제 행사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여 조직홍보 및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 국제사회는 'NGO의 시대' 또는 'NGO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를 만큼 NGO들이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또한 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는 지금 새천년을 맞이하여 변화의 소용돌이를 통과하고 있으며 환경, 여성, 인권, 문명권의 충돌 등 이른바 '글로벌 이슈들'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유하고 있어 NGO 활동이 더욱 강한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대규모 국제행사 5건 중 4건이 NGO의 과격한 시위 관계로 회의가 결렬 또는 회의 진행이 실패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행사시 원만한 회의진행도 중요하지만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 대한 경호안전 분야도 똑같이 중요하다 하겠다.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주관하는 주최국의 공안당국이나 경호경비 유관기관은 원만한 회의진행 못지 않게 각국정상들의 안전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주 행사장과 일정거리가 이격된 지점에서의 평화적 시위개최는 허용하여 NGO들의 활동 명분도 인정해 주는 것이 시위시 경찰과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24) 2000. 8. 9, LA중앙일보.

최근 국제행사시 NGO들의 활동성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경호경비 유관기관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 시위개최 NGO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확한 정·첩보 입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첩보를 바탕으로 NGO의 활동계획 및 행동반경을 사전에 인지, 시위대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함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 군중들의 NGO 합류배제를 위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격 불법 시위장에는 NGO뿐만 아니라 일반군중들이 상당수 합류되어 돌발적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배제시켜야 한다.

셋째, 평화적 시위개최 NGO와 불법 NGO에 대한 차등 대응이다. 평화적 시위개최 NGO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동을 보장해주되 과격성향의 불법 NGO는 초동단계부터 강력 대응하여 시위의지를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

최근 국제행사시 NGO에 의한 시위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공안기관에서도 과격, 평화시위 성향을 분석하여 차등적, 선별적으로 대응함이 필요하며 필요시 일정 수준의 집회, 시위는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 건국이래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제3차 ASEM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향후 2002년 월드컵 대회, 2005년 APEC회의 개최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 NGO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 경찰청, 9~10월 집회 및 시위 분석, 2000.
경찰청, 해외 공안기관의 NGO 행사방해 세력 분석 동향, 2000.
경찰청, 「ASEM2000」 관련 집회, 시위 관리 대책, 2000.
경찰청, ASEM기간중 NGO 집회 일정, 2000.
국가정보원, ASEM행사 방해책동 분석 및 대책, 2000.
국가정보원, 국제 NGO의 국제행사 방해 사례, 2000.
대통령경호실, 국내 반미성향 NGO 동향 분석, 2000.
대통령경호실, NGO의 개념, 이론적 배경, 2000.

▣ 외국문헌

- AFP, 24 Sep, "Prague : Italiens refoules poursuivis pour activities a Seattle".
AFP, 26, "Affrontements violents a Prague : pres d'une centaine de blesse".
The Independent, 27/September/2000 "Riots erupt at summit".
Sueddeutsche Zeitung, 27/09/00, "Strassenchlachten bei IWF-Tagung in Prag".
Reuters, 27/Septembre 2000, 09:52, "Heurts entre policiers et militants anti-FMI".
<http://www.inpeg.org>.
<http://unnews.co.kr/ngo-sub/ngo-7.htm>.
<http://www.kpf.or.kr/kpinet/M399/s346-PC.htm>.
<http://sisakorea.hihome.com/sisakorea-1-9.html>.
<http://www.assembly.go.kr/~kimyi/news-32.html>.
<http://www.ngo.or.kr>.
LA중앙일보, 2000. 8. 9자.
The Ruckus Society website Home Page.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 of NGOs' Rally and Struggle during Multi-Summit Meeting

by Yang, Jae Yul

NGOs occupy so high international position that it is said the age of NGOs or Renaissance of NGOs has come. Recently, they continuously succeeded in hindering and blocking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through their violent struggles.

This paper studied the concept of NGO, examples of NGO struggles during recent international events and stated anticipated struggles during ASEM III and their trend. Thereafter, with future prospect of NGO activities, some measures for successful 2002 World Cup and 2005 APEC were provided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

Chapter I : Introduction

Chapter II : The concept of NGO and aspects of their struggles during recent international events

Chapter III : Struggles during the 3rd ASEM, Seoul and their trend

Chapter IV : Future prospect of NGO activities

Chapter V : Conclusion